

삶과 죽음, 인간이 가야할 길



18세기 풍속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고 풍부한 일상생활의 장면을 담은 불암사 감로탱의 하단부. 저지거리 주점, 대장간, 남사당패 공연 등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경복대 박물관 소장 감로탱.



바둑 두는 두사람 사이에 이들을 훑내 낸 영혼(원 안)이 '수목물골'로 표현됐다. 원광대 소장 감로탱.



해인사 감로탱의 영가천도제 부분도.

이렇게 감상하세요

하단부에 군상들 시대상 반영 까맣게 표현한 영혼 찾기 묘미

감로탱의 하단부를 주목하라. 감로탱 감상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왜 하단부인가. 하단부의 군상들이 표현해내는 시대상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보다 특별한 재미는 그 시대가 보여주는 생활상을 현대와 비교해 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감로탱 하단부의 과거 현재 비교는 다양한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에서 한 번,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선사한다.

총 칼을 겨누고 싸우는 전쟁장면, 남사당패의 공연 모습, 침을 잘못 맞은 환자가 죽는 의뢰사고, 자살, 시장 풍경, 노숙자의 모습 등 다양한 생활군상이 곳곳에서 재미를 드러낸다.

하단부에는 또 하나의 재미가 숨어 있다. 숨은 그림 찾기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영혼 찾기다. 그림자처럼 까맣게 그려진 도상들은 현실의 인물들을 훑내 내고 있는 영혼을 표현한 것이다. 바로 이 기법인 '수목물골(水木物骨)'로 그린 영혼의 모습은 안국암 감로탱, 흥훈사 감로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로탱이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불화 18세기 이후 다양한 사회상 담아

16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제작된 감로탱은 수목재나 사십구채 천도제 등에 쓰이는 의식용 불화이다. 죽은 이에게 감로(甘露)같은 법문을 베푸는 뜻에서 감로탱, 감로왕도(甘露王圖)라고 불렀다. 영가단에 봉안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영가단 불화'라고도 하고, 내용상 <우란분경(于闐盆經)>을 근본 경전으로 삼기 때문에 우란분탱화·우란분경변상도라고도 한다.

감로탱은 모든 중생의 영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극락으로 왕생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불화이다.

감로탱은 상단 중단 하단의 삼단으로 구성된다. 상단은 아미타삼존을 포함한 칠여래, 오여래 등의 부처와 지옥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인로왕·지장·관음 등의 보살이 공존하는 불보살의 세계를 보여준다. 중단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절차를 그린 반승(飯僧) 장면과 천도의 대상인 아귀가 공양을 받들어 먹는 장면을 그렸다. 스님·성현(聖賢)·뇌신(雷神) 등 높은 신분의 인물들이 자리한다. 하단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실생활과 지옥도로 표현했다.

'감로탱'의 세계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을 주제로 조성된 '감로탱(甘露幢)'. 부처의 세계에서부터 아귀들이 가득한 지옥에 이르기까지 묘사를 통해 불자들에게 '죽음을 대비해서 바르게 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온다. 감로탱은 통속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고통과 슬픔을 정면에서 바라본다. 수많은 불화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현실의 삶에 밀접한 감로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감로탱 전시회를 계기로 알아본다.

감미로운, 그러나 결코 감미롭지 않은 인생사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 마치 한 편의 풍속화라도 보는 것 같은 불화 '감로탱'이 국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였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0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감로탱 만을 모은 '감로(甘露) 전시회'를 열고 있다. 2005 문화관광부 복원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시이다.

23점의 감로탱을 선보인 이번 전시에서 첫 공개되는 감로탱은 두 점. 17세기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감로탱과 함양 법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안국암 감로탱이 바로 그것이다.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감로탱은 다른 조선시대 감로탱에 비해 현저하게 크기가 작고 하단의 감로를 받는 고혼들이 매우 축소된 점이 특징이다. 안국암 감로탱은 보통 한쌍씩 배치되는 아귀가 영가천도제를 올리는 스님들을 향해 합장한 단독상으로 묘사된 것이 독특하다.

이외에도 국내 최고(最古)작으로 알려진 보석사 감로탱(1649), 석가모니 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스님이라는 독특한 상단을 선보이는 청룡사 감로탱(1692), 조선 후기 한국적 불화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

통사 감로탱(1791), 구체적이고 풍부해진 풍속장면이 인상적인 불암사 감로탱(1890) 등이 눈길을 끈다.

정병모 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는 "감로탱은 보는 사람에게 좀더 실감을 주기 위해 하단의 내용들을 당시 생활모습으로 환원해서 표현해왔다"며 "감로탱 역시 다른 불화처럼 의식 의계 내용을 기준으로 그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현실성을 살리기 위해 풍속화의 영향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산 통도사=김지연 기자·사진제공=통도사 성보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 '감로'展(11월 28일 까지)

국내 最古작 '보석사 감로탱' 등 23점 한자리

"보다 현실성 살리기 위해 풍속화 영향 받아"

2006년 감로불교카렌다

인사합격기도

이루어주소서(기도)

강이아기거는 동지승의 세계

불국정토

산사의 향기

불자동의보감

탑이 있는 풍경

진흙속에 피는 연꽃

원성스님 동승전

사찰음식과 전통차

피안의 노래

동승일기

산사에 피는 들꽃

부처님의 생애

원성스님 연화이야기

불교성지

무소유와 깨달음의 지혜 발우

범음이 있는 산사

선으로가는 길

백의관음도

- 규격
- 국 6결 카렌다(30×31cm)
 - 작은 카렌다(25.5×26.5cm)
 - 국12결카렌다(21×22cm)
 - 탁상용 월력(21×13.5cm)
 - 초미니 차걸이(8.8×9.5cm)
 - 수첩용 메모 카렌다(9.5×13.5cm)
 - 컬러숫자판 카렌다 7매(25.5×26.5cm)

수첩용 메모 카렌다

원성스님 동승전

동지승의 세계

이루어주소서

피안의 노래

동승의 하루

탁상용 카렌다